

화순, 사회복지급식관리센터 운영

소규모 노인·장애인 서비스 지원
동신대 산학협력단 위·수탁 협약
건강 특성 고려 맞춤 레시피 제공

협력단(대표 최효승)과 지원센터 위·수탁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지원센터는 7월 안에 설치 준비를 마칠 것으로 보인다.

군과 동신대 산학협력단은 지원센터를 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

지원센터는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노인·장애인 사회복지시설 급식소의 위생과 영양관리, 이용자의 급식·영양 등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영양개선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센터 전문 영양사가 해당 시설을 방문해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급식소 등록 ▲건강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식단과 레시피 제공 ▲조리사·요양보호사·시설 이용자 대상 식생활 교육 ▲위생·영양관리 방문 지도 등 관리·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지금까지 50인 미만의 소규모 노인·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은 전문 영양사 없이 급식이 제공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위생관리, 이용자의 영양

관리 등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는 의무적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해 영양·위생 관리를 지원해 왔지만,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원센터 운영으로 노인·장애인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의 균형 있는 영양관리, 급식 위생 관리, 식생활 개선 등 효과가 기대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지원센터가 본격 운영되면, 위생·영양관리가 취약했던 노인·장애인 사회복지시설 급식 이용자의 영양 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설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균형 있는 영양식이 제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상반기까지 전국적으로 7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됐다. 올해 하반기에는 화순군을 포함해 5개 지역에 신규 설치될 예정이다. /화순=이종백 기자

화순군이 '전남 지자체 최초'로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급식을 관리·지원하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7월부터 운영 중이다.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가 없는 50인 미만 소규모 노인·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관련 위생·안전·영양관리 서비스를 지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2월 화순군의 지원센터 신규 설치를 확정했다. 그동안 화순군은 지원센터 운영 계획, 위탁 운영기관 선정 등 운영 준비를 해 왔다.

군은 위탁 운영기관으로 선정한 동신대 산학



사진 왼쪽부터 김명주 작가의 모친 이성자씨, 김명주 작가, 이상의 함평군수. /함평군 제공

함평군수, '혼불문학상' 김명주 작가 격려

이상의 함평군수가 지역 출신으로 '제12회 혼불문학상'을 수상한 김명주 작가를 격려했다. 함평군은 11일 "이상의 함평군수가 최근 군수실에서 김명주 소설가와 환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함평군 읍다면 송로리 해정마을 출신인 김명주 작가는 장편소설 '검푸른 고래 요나'로 제

12회 혼불문학상을 수상했다. '혼불문학상'은 소설 '혼불'의 작가인 최명희(1947-1998)의 문학혼을 기리기 위해 전주문화방송이 2011년 제정한 대한민국의 문학상이다.

이상의 군수는 "김명주 작가께서 이번 혼불문학상 수상으로 지역의 명예를 드높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함평=윤예중 기자



강진MTB동호회는 최근 강원도에서 라이딩하며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를 홍보했다. /강진군 제공

강진MTB동호회, '춤추는 갈대축제' 홍보 라이딩

강진MTB동호회가 최근 강원도 후전선 일원을 라이딩하며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 등 강진 축제와 관광지 홍보에 적극 동참했다.

이번 팸리를 위해 동호회 회원 30여 명은 폭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출발해 백두대간 진부령고개를 넘어 양양군, 양구군, 인제군, 화천군, 철원군 등 300km를 달렸다. 회원들은 등에 제7회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

제 홍보지를 붙이고 라이딩했다. 또 북한의 임남담 무단 방류를 대비해 국민들이 성금으로 조성한 평화의 담과 50년 이상 사람의 발길이 끊겼던 민통선 내 두타연을 답사하며 남북분단의 아픔과 통일을 염원하는 시간을 갖고 돌아왔다.

강진MTB 동호회는 200년 창설 후 13년째 친환경 산악자전거를 타고 매년 관외로 나가 강

진군을 홍보하는데 힘쓰고 있다.

화천군에서 산정정육점을 운영하는 정유선 씨는 "동호회원들의 등 뒤에 부착된 강진군 홍보물을 보고 강진군이라는 곳을 알았다"며 "올 가을에는 강진만갈대축제에 꼭 가보고 싶다"고 말했다.

김동섭 회장은 "지속적인 MTB라이딩을 통해 전국에 강진을 알리고 강진의 많은 관광지를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자전거 타기를 생활화 하자"고 덧붙였다.

/강진=한태선 기자

진도,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추진

진도군이 저소득층 주민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에너지 이용 환경이 열악한 가구를 대상으로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11일 진도군에 따르면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은 한국에너지재단과 함께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단열·창호·바닥 배관 공사

등 난방시공 지원 ▲노후 보일러를 에너지 효율이 높은 보일러로 교체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가구, 복지사각지대 등 저소득 가구이다. 가구당 2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시공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진도군은 400여 가구를 발굴·지원 할 예정이다. /진도=박병호 기자

'목포서 일주일 살기' 문의 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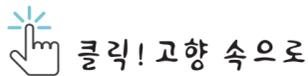
총 4회차 80팀 선정

목포시와 목포문화재단이 작년에 이어 추진하는 '목포 일주일 살기'가 예약 문의가 벌써부터 쇄도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1일 목포시에 따르면 일주일살기(SAFE하게 FLEX하자!)는 '목포에 체류하며 아름다운 경관을 보고(SEE),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ACT), 문화 예술을 느끼고(FEEL), 목포의 9미(味)를 맛보며(EAT), 다른 사람들에게 목포를 자랑하자(FLEX)'를 골자로 하는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이다. /목포=박승경 기자

올해도 총 4회차에 걸쳐 최소 4박에서 최대 6박 일정으로 진행되는데 폭넓은 계층의 여행객을 유입하기 위해 시는 회차별 다른 주제와 다양한 연령층을 타겟으로 설정했다.

회차별로 20개팀(팀당 1-4인)을 모집하는 가운데 1·2회차는 오는 27일까지 모집하며, 운영기간은 각각 8월 16-22일, 8월 23-9월 4일이다. 참가자로 선정되면 체류기간(4-6박)동안 팀 인원수에 따라 1박당 4만-7만원의 숙박비가 지원되는 가운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및 관광지 입장료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목포=박승경 기자



목포해경, 구명조끼 무료 대여 서비스

목포해양경찰서는 해양안전문화 확산과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9월 말까지 3개월 간 '구명조끼 무료 대여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구명조끼 대여 서비스는 관내 북항 파출소와 영광파출소를 방문해 간단한 신분 확인 후 신청 및 대여가 가능하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연안에서의 안전사고 대부분은 개인 부주의와 안전감각증으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에 구명조끼 착용은 사고위험을 줄이는데 필수품"이라며 "선박 이용객은 물론 부주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낚시, 방파제 행락객도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 달라"고 말했다. /목포=김동균 기자



화순 농업기술센터, 도자기 교육 성료

화순군농업기술센터가 운영하는 '슬쉬는 도자기 교육'이 수강생의 큰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

화순군이 최근 이양면에 있는 무량광도에서 '2022 농촌생활문화 슬쉬는 도자기 교육 수료식'을 가졌다. 군은 지난 4월부터 농촌 생활문화 치유와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기초반과 중급반으로 나눠 매주 2회

씩 도자기 공예반 교육을 운영해 왔다.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교육에서 기초반은 32점의 작품을, 중급반은 33점의 작품을 만들었다. 한 수강생은 "흙을 만지며 마음을 치유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전통 생활문화 교육을 수강할 기회가 생기면 꼭 참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화순=이종백 기자



(사)한우협회영암군지부, 맛 체험 행사

(사)전국한우협회영암군지부는 최근 삼호중학교를 비롯해 총 4개 학교 1,328여명에게 한우 불고기 169kg을 전달하고, 삼호중앙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청소년 한우 맛 체험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우승희 영암군수, 김동구 전국한우협회영암군지부장 등 한우협회 임원진이 함께 한우

불고기 배식과 맛 체험에 참여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한우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급식에 한우 사용 권장으로 한우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한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동구 지부장은 "이런 행사를 지속해서 마련해 우리 한우에 대한 우수성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최복섭 기자